



新고유가 시대, 에너지절약으로 슬기롭게 극복합시다.

희망 찬 丁亥年 새해를 맞아 에너지절약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ESCO 관계자 여러분께 지면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해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경제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환율하락, 新고유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4년 연속 두자리 숫자의 수출증가세를 기록하면서 세계에서 11번째로 수출 3,000억불을 돌파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고유가 상황속에서 국민생활의 안전과 산업발전을 뒷받침하는 에너지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상외교 및 자원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개발·보급하는 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에너지절약을 통해 에너지저소비형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전개하였습니다. 공공부문에 승용차 요일제를 전격 실시하였고, 간소복 착용, 적정냉난방온도 준수 등을 강력히 추진하여 공공부문이 에너지절약에 솔선수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3·6·9' 에너지절약 국민참여 운동을 실시하고 '한가정 한등 고효율조명 달기', '에너지(-)·사랑(+)' 등 테마 캠페인도 함께 실시하여 국민들이 에너지절약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하였습니다. ESCO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민간자금 투자사업에 대해서도 ESCO 실적으로 인정하여 ESCO 시장이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고효율 에너지기기 개발사업 등 기술혁신을 통한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원화강세, 세계경제의 둔화가능성 등으로 국내외 여건이 지난해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가 또한 작년보다 하락하기는 하였지만 불안정한 수급구조, 중국 등 에너지소비대국의 치열한 자원확보경쟁, 산유국의 정정불안 등이 지속되고 있어 신고유가 체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산업자원부는 이러한 신고유가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정상 자원의외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공급기반을 구축하고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또한 더욱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석유위기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를 절약하고 이용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고유가를 극복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최근 에너지효율향상을 에너지정책의 핵심전략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끝나는 에너지원단위 3개년계획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그 성과와 미흡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나라 에너지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08~12)'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에너지저소비형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온 분야별 에너지수요관리 시책들도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지속적으로 평가·관리해나가겠습니다. ESCO사업 또한 민간자금융입방안 등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신고유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SCO를 포함한 에너지업계 여러분들도 이러한 정부의 정책들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산업자원부 차관 이원걸



국가 에너지 효율향상의 견인차 역할 ESCO에게 기대

황금 돼지해라는 희망찬 정해년이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ESCO인 여러분들께서 뜻하시는 바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과 일터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는 물론이고 에너지산업도 한층 더 번창하고 도약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난 2006년은 이란의 핵 문제 등 중동지역의 정정불안과 개발도상국의 석유수요 급증으로 중동산 두바이유의 가격이 배럴당 72\$를 넘어서는 신고유가 상황의 지속으로 우리 경제가 큰 부담을 겪었던 한 해였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유가의 폭등세는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국제 유가는 불안하며, 국제 정세에 따라서는 새로운 유가폭등의 가능성도 내재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자원 확보 경쟁이 첨예한 가운데 산유국들의 자원무기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트 교토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온실가스 부담압력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차세대 자원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가 간의 기술경쟁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앞에는 앞으로도 극복해 나가야 할 여러 과제가 쌓여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ESCO산업은 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ESCO인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국가 에너지효율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지난 1992년 ESCO제도가 도입된 후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ESCO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세제, 제도적 및 기술적 지원과 시장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ESCO업체들이 기술경쟁력, 시장 신뢰성을 바탕으로 에너지절약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자금지원규모의 지속적 확대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중장기 ESCO 활성화 Road Map”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기업/중소기업, 선발/후발 업체간의 건전한 역할분담을 통해 ESCO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ESCO등록기준 개편 및 우수 ESCO 인증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올해 ESCO 투자사업에 지원될 예산은 1,474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20% 늘어난 것이지만, 날로 늘어나고 있는 수요에 비해서는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ESCO업계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ESCO당 지원액을 300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투자자당 지원금도 150억원으로 낮춰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자금지원 한도의 축소로 인한 사업 위축을 막기 위해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민간자금과 정책자금을 수요자가 요구하는 비율로 조합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해 노력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도 ESCO업계가 국가 에너지효율향상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ESCO사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SCO인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한한 발전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올 한해도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이기섭